

# 韓國基督教大學의 聖書教育에 關한 研究

## —聖書科目을 中心으로—

吳 銀 洙\*

- I. 序 論
  1. 宗教와 教育
  2. 聖書教育의 用語
- II. 基督教大學의 教育目的과 聖書教育
  1. 基督教大學의 教育目的
  2. 基督教 經典으로서의 오늘의 聖書
  3. 教養科目으로서의 聖書教育
  4. 韓國 基督教大學 教育理念과 聖書教育
- III. 韓國 基督教 高等教育機關의 聖書教育의 過去와 現在
- IV. 韓國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
  1. 美國의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
  2. 日本의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
  3. 韓國의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
- V. 韓國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의 諸問題
  1. 教師問題
  2. 教科書와 教材問題
  3. 聖書科目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
- VI. 結 論

## I. 序 論

### 1. 宗教와 教育

宗教와 教育은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漢字로 “으뜸되는 가르침” 또는 基幹되는 教育”으로 풀이될 수 있는 宗教는 教育的 內容과 手段을 함께 具備하고 있다. 儒教는 그 全體가 教育이며 그 經典들은 教育的 手段으로써의 教科書로 使用되었다. 그리고 世界的인 모든 宗教들은 이 點에 있어서 是 例外없이 같은 것이다.<sup>1)</sup> 基督教에는 舊約聖書의 “하나님을 敬

\* 文理科大學(서울) 敎授

1) 儒教, 佛敎, 유대敎, 이슬람敎 등 世界的인 宗教는 모두 經典을 最高의 道德의 規範으로 삼는데 一致하고 信徒들의 教科書로 使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畏함이 知識의 根本이라”<sup>2)</sup>는 聖句가 宗教의 教育的 定義를 가장 잘 表現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特히 新約聖書의 “모든 聖經은 眞理를 가르치고 잘못을 責望하고 허물을 고쳐주며, 義로 教育하는 일에 有益하며 사람이 모든 善한 일을 하기에 合當하도록 完全히 準備된 冊입니다.”<sup>3)</sup> 라고 한 句節에서 基督教 教育의 目的과 經典인 聖書의 教育的 役割이 明確하게 闡明되었다. 따라서 教會를 包含한 基督教의 모든 活動은 教育的이 아닌 것이 없다.

基督教의 宣敎의 目的은 人類를 救援함에 있으며 人類의 未來를 左右하게 될 重要な 要素는 教育 特히 大學教育이라고 생각할 때 宗教의 目的은 教育을 通하여 實現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찍 基督教은 그 宣敎過程에서 大學設立에 努力해 왔으며 이것이 오늘 世界에서 優秀한 基督教大學들이 많은 理由인 것이다. 그리고 基督教 教育의 實際的이고 具體的인 關心事는 “그리스도와 世界” 或은 “教會와 社會” 나아가서는 “基督教과 文化”의 問題인 것이다. 이같은 問題는 結局 “聖書와 教育”이라는 課題에 歸着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基督教大學의 聖書教育의 意義와 重要性을 느끼는 同時에 基督教大學에서 聖書教育이 그 實效를 거두고 있느냐 라는 물음은 오늘의 基督教大學들이 深刻한 課題로 받아드려야 함을 強調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本研究은 韓國 基督教大學의 聖書教育의 過去와 現在를 觀察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方向을 描索해 보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 2. 聖書教育이란 用語에 關하여

聖書教育이란 말은 흔히 쓰여지고 있는 말이지만 特히 本稿에서 筆者가 意圖的으로 使用한 用語임을 말해 두고자 한다. 換言하면 基督教 教育이란 말이나 宗教教育이란 用語보다도 聖書教育이란 말을 選擇해서 더 浮刻시켜 使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歐美各國에서는 基督教教育이란 用語가 使用되어지기 以前에 宗教教育이란 말로 通用되어 왔으며 지금도 一般的으로 Christian Education이란 말 보다 Religious Education이란 用語가 더 많이 使用되어지고 있다. 歐美各國에서는 基督教가 支配的인 宗教이며 他宗教가 있다해도 比例가 되지 않을 程度이며, 境遇에 따라서는 基督教가 國敎처럼 된 國家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나라에서는 包括的인 意味를 갖는 宗教教育이 自然스럽게 基督教 教育과 同一한 것으로 一般化되어 使用되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東洋各國에서는 事情이 이와는 다르며 基督教 보다도 佛敎나 儒敎 其他 宗教들이 더 優勢한 나라들이 많은 곳에서는 宗教 教育이 基督教 教育과 代置시킬 수 없는 用語가 된다. 特히 近來에 歐美各國에서 宗教教育이란 말 보다 基督教教育이란 말을 더 쓰게 된 動機의 하나로서 K. Barth 神學의 影響이 컸음을 指適하고 있으며 그 理由는 基督教의 眞理, 福音의 獨自性和 特異性을 強調하는데 起因된 것으로 보는

2) 箴言 1:7

3) 디모데후 3:16

것이다.<sup>4)</sup>

특히 筆者는 本稿에서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聖書教育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자 하는 바이다. 韓國에 있는 綜合大學校 中에는 設立目的에 따라 單科大學으로 佛敎大學, 儒敎大學을 갖고 있음으로 基督教大學의 宗教教育을 基督教教育이라는 말로서 區別지을 수 있겠다. 그러나 基督教教育은 敎會教育, 基督教 學校教育, 基督教家庭教育들을 包含시켜서 부르는 名稱이다. 그러나 敎會教育을 爲始해서 基督教 學校教育和 基督教 家庭教育 其他 다른 모든 基督教教育의 內容이 恒常 基督教의 經典인 聖書의 基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聖書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事實을 強調하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基督教大學의 基督教教育 全般을 取扱하려고 하지 않고 大學 커리큘럼에 屬하는 基督教 科目을 中心으로 論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基督教에 關한 科目이라 하더라도 亦是 聖書科目으로 通稱코자 한다. 現在 某 基督教大學에서는 宗教科目이라 稱하고 있는가 하면 基督教科目이라고 부르는 大學도 있으며 一部 地方 或은 市內 基督教大學 中에는 聖書科目으로 通稱해오고 있으며 現在 基督教系 中高等學校에서 使用하고 있는 基督教에 關한 科目들을 모두 聖書科目 敎科書로 通稱하고 있다.<sup>5)</sup> 이같은 傳統은 基督教系 學校들이 基督教科目들을 聖書의 基盤 위에 두고 聖書を 重要視한다는 原則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思料된다.

## II. 基督教大學의 教育目的과 聖書教育

### 1. 基督教大學의 教育目的

基督教教育機關마다 教育目的을 標榜하게 되어 그 表現들이 多樣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世上에 온 것은 사람들의 生命을 豐盛하게 하려 함에 있다”<sup>6)</sup>라고 한 것은 기독교 教育 目的을 가장 包括적으로 잘 나타낸 聖句라고 하겠다. 이 말은 人格의 成長 속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갖는 經驗을 體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일大學(Yale University) 敎授 P.H. Vieth가 그의 研究論文에 基督教教育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sup>7)</sup> (1) 그리스도교적 人格形成 (2) 그리스도교적 人生哲學(Christian life philosophy) (3) 敎會와 民族의 遺産의 繼承과 發展 (4) 그리스도교적 家庭教育 (5) 그는 끝으로 綜合的 表現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啓示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社會奉仕를 實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生活할 수 있는 人格을 養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高崎毅, 基督教教育, 新敎出版社

5) 한국기독교 敎會연맹과 기독교 敎育협의회에서 편찬한 中高校의 敎科과목의 名稱을 “성경 敎과서”로 하고 있다.

6) 요한 10:10

7) M. J. Taylor: *Religious Education*, Abingdon Press, New York, 1960, pp.70~71.

J. E. Dirks 는 기독교大學의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in Church Related Colleges and Universities)라는 項目에서 기독교대학의 職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論했다. (1) 知識과 眞理에 對한 開放的 態度를 기쁨 (2) 人格的 關係를 重要視함으로써 共同社會的 責任性의 強化 (3) 새 文化 創造 등이다.<sup>8)</sup>

우리는 Dr. Vieth 가 提示해준 기독교大學의 教育 目的이나 Dr. Dirks 가 指摘한 기독교大學의 職責 以外에도 適切하고도 妥當한 條目들을 더 많이 添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基督教大學 教育의 目的은 “基督敎의 經典인 聖書의 敎訓에 依하여 그리스도의 새 人格을 形成하는 것이다”라는 말로서 綜合되어지고 이같은 教育目的을 達成시키는 것이 基督教大學의 職責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 2. 基督教 經典으로서의 오늘의 聖書

오늘의 世界 宗教中에 基督教이 가장 널리 傳播되었고 많은 信者數를 갖고 있으며 이는 世界 人口의 約 30%에 達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基督教은 여러 宗派와 많은 敎派들을 갖고 있기는 하나 모두 同一한 聖書を 經典으로 삼고 있으며 그 信者들의 人生觀, 價値觀은 經典인 聖書에 依하여 形成되었고 그들의 삶의 指針이 되는 것은 亦是 聖書인 것이다. 이같은 聖書는 1969年 現在 1,413方言으로 翻譯되어 있으며 이것은 世界의 人口 約 90%以上이 自己의 母國語와 地方語로 聖書を 읽을 수 있다는 事實을 말해주는 것이다.<sup>9)</sup> 그리고 1969年 한 해 동안에 販賣된 聖書의 總部數는 145,335,092卷이었으며 大英聖書公會에서 發表한 報告에 따르면 每年 그 數字가 增加해 왔다는 것이다.<sup>10)</sup> 이같은 事實은 一般的 豫想과는 相反되는 것이겠으나 聖書가 이와 같이 많이 販賣되어지고 있다는 事實은 그만큼 聖書가 많이 需要되고 더 읽혀지고 있다는 證據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聖書가 이처럼 그 需要의 增加를 보게 되는 理由中에는 敎會에서 使用되고 信者들이 愛讀하며 每年 敎人數의 增加에 따라서 聖書의 需要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一般的 豫想과는 달리 非基督教인 家庭에도 聖書가 備置되어져 가고 있으며 敎會에 出席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聖書を 갖는 사람들의 數가 增加되고 있으며 其中에는 愛讀者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豫想된다. 이같은 事實의 實例를 우리의 隣接國인 日本의 경우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日本은 1969年度의 聖書總販賣數가 4,879,306卷이었고 1968年度에는 4,410,097卷이어서 一年에 469,209卷의 增加를 보여 주었다.<sup>11)</sup> 이것에 比하여 韓國은 1969年에 3,655,399卷이 販賣되었고 1968년에는 2,978,484卷이 販賣되었다.<sup>12)</sup> 여기서 우리들이

8) Ibid pp. 296~297.

9) Bulletin United Bible Societies No.82 Second Quarter 1970, p.51.

10) Ibid p.104.

11) Ibid p.103.

12) Ibid p.103.

發見할 수 있는 事實은 1969년에 日本은 韓國보다 1,223,907卷이라는 莫大한 數가 더 많이 販賣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舊敎와 新敎를 합해서 敎會數가 14,145인데 比하여 日本은 6,960밖에 되지 않으며 敎人數도 韓國은 3,345,348名인데 比하여 日本은 794,586에 不過하다.<sup>13)</sup> 이것은 日本이 韓國보다 敎會數는 切半未達이며 敎人數는  $\frac{1}{4}$ 에도 未達됨을 보여 준다. 敎會數와 敎人數가 絶對多數인 韓國보다 莫大한 數量의 聖書 販賣實績을 갖는 日本은 敎會밖에 있는 一般社會에 聖書의 需要가 많음을 立證해 주며 敎人으로 自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聖書を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같은 事實에서 얻을 수 있는 結論은 現代社會에서도 聖書가 無視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聖書가 오늘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事實은 聖書 그 自體가 時代를 超越해서 絶對的인 價値를 갖고 있으므로 時代의 變遷에도 不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必要하며 愛讀되어지고 있는 冊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3. 敎養科目으로서의 聖書敎育

聖書는 人類의 最大의 冊이다. 特히 人格의 感化力에 있어서 그러하며 人類의 精神文化에 끼친 影響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卽 聖書는 美術, 文藝, 政治, 思想, 倫理 등 人間의 삶的全領域에 걸쳐 影響力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爲先 奴隸解放運動을 爲始해서 社會制度의 改革運動에 큰 影響을 주었다. 特히 文化的 改革運動과 未開地域의 開化運動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으며 世界의 精神的 指導理念이 모두 聖書에 起因된 바 크다. 卽 自由, 平等, 博愛, 平和, 奉仕 등의 精神이 모두 聖書에서 培養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現代의 民主主義의 基本理念도 聖書의 敎訓에 起因되었고 西歐文明의 出生과 成長過程에 있어서 基督教精神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때 基督教精神의 바탕인 聖書와 오늘의 西歐文明은 不可分의 깊은 關係를 認定해야 할 것이다. 特히 聖書가 韓國에 傳來되었을 때 가장 오래된 聖書譯本인 루미스—李樹楨 譯本의 由來는 위와 같은 特別한 事例로서 意味를 갖는다고 본다. 卽 日本에 官費生으로 留學했다가 官吏가 된 李樹楨은 日本 聖書公會의 總務였던 루미스를 도와서 四福音書와 使徒行傳을 翻譯했다. 그 때 東京서 亡命生活을 하고 있던 金玉均 등 改革派 四靑年들이 그 번역事業에 同參했었다.<sup>14)</sup> 이 때 李樹楨·金玉均 등 韓國靑年들은 聖書가 우리 나라의 改革事業과 文化發展에 有益하다는 事實을 確信했기 때문에 그들이 聖書翻譯事業에 協力하고 貢獻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은 理由에서 聖書는 基督教大學의 敎養科目으로서도 重視되어 마땅하며 非基督教系 一般大學에서도 古典으로는 勿論이고 敎養을 爲한 科目으로서 必要하며 그 價

13) 1967年度 한국 기독교 年鑑, 1966年度 日本 기독교 年鑑.

14) “한글聖書翻譯史,” 白樂溶著 韓國改新敎史 p. 81, 94.

値를 認定해야 할 것이다.

#### 4. 韓國 基督教大學 教育理念과 聖書教育

世界大學史에 依하면 西歐의 가장 오래된 大學들은 基督教에서 그 指導者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한 大學들이었다. 따라서 初創期로부터 聖書教育에 力點을 두었던 것은 至極히 當然한 것이었으며 傳統을 이루게 되었다. 韓國의 경우에서도 高等教育機關은 먼저 基督教에 依하여 設立되었으며 그 學校設立 目的에 따라서 設立者들은 그리스도의 人格教育에 힘썼고 聖書を 正規 教科目으로 教授하기에 盡力했던 것이다. 이같은 事實은 基督教學校 教育理念이 聖書教育을 通하여 達成될 수 있다는 信念이 強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世界 各處의 기독교 大學들이 점점 그 特色을 잃어 가고 있으며 聖書教育에 對한 關心度가 稀薄해져 가고 있는 實情이다. 韓國의 기독교 大學들도 最近에 와서 一層 더 이같은 事實이 顯著하게 되어지고 있다.

基督教 三個大學(崇田大·서울女大·啓明大) 共同研究 Team 이 發表한 바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事實이 指摘 되어지고 있다.<sup>15)</sup> 基督教系 六個大學(啓明大·崇田大·서울女大·西江大·延大·梨花大)의 教務行政責任者들과의 面談을 通하여 얻어진 結論은 基督教大學으로서 教育目標가 分明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大學들이 한결같이 教育理念과 目標로서 基督教 精神을 標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基督教 精神이 果然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具體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 指摘되고 있다. 基督教大學의 教育目標를 基督教精神教育이라고 말할 때 換言하면 “그리스도敎의 人格形成”이라고 할 수 있고 더 具體적인 表現은 被教育者들에게 그리스도敎의 人生觀과 價値觀을 길러줌을 뜻하는 것이겠다. 이와 같은 人物을 養成해서 社會에 輩出시키는 것이 基督教大學의 理念과 目標를 達成하는 것이 된다. 이같은 大學理念을 具現하기 爲해서는 大學의 運營體制를 爲始하여 大學의 雰圍氣, 教授와 學生間의 人格的 關係, 學生들의 課外活動, 大學체플 등 多彩로운 많은 教育프로그램들이 있겠다. 그러나 學生들에게 가장 直接的으로 큰 影響을 끼치는 것은 教科目으로써 授業時間에 教授하는 聖書科目이라고 생각한다. 現在 우리 나라 大學들 중에는 運營者가 基督教信者일 경우에 聖書科目을 正規커리큘럼에 넣어서 授業함을 除外하고는 많은 기독교적 教育프로그램을 導入시켜서 施行하고 있는 學校가 많다.<sup>16)</sup> 特히 그 중에는 캠퍼스 안에 教會를 設立해서 運營하고 있으며 宗教科目 或은 基督敎科目들을 教養科目으로 選擇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基督教教育에 關心을 갖는 大學일지라도 決코 自己大學을 基督教大學이라고 標榜하지 않고 있으며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事實에 立却해 볼 때 그 大學의 性格을 特徵지어 基督教大學이나 아니냐를

15) 韓國基督教大學 教育內容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서울女大, 啓大, 崇大 研究팀)

16) 中央大, 경희대, 수도女師大,明知大 등이 캠퍼스 안에 교회 운영 또는 교목을 두고 있음.

區別짓는 要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聖書科目을 그 大學의 正規 커리큘럼으로 教授함은 基督教大學 教育理念을 具現하는 가장 直接의 方法인 同時에 基督教大學의 性格을 規定짓는 標準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Ⅲ. 韓國 基督教 高等教育機關의 聖書教育의 過去와 現在

韓國의 現代式 學校는 宣教師요 醫師였던 H. N. Allen 이 1885년에 廣惠院(House of Extended Grace)이라는 醫療機關을 設立했고 후에 濟衆院으로 改稱되면서 1886년에 Allen, Underwood, Heron 을 教師로 하여 開校됨으로서 始作되었으며, 이것이 세브란스 醫科大學, 그리고 今日의 延世大學校 醫科大學으로 發展되었다. 그리고 韓國의 첫 大學 名稱을 갖게 되었던 崇實大學(Union Christian College)은 1894年 Dr. Moffett 을 設立者로 平壤에서 始作되었고 1897年에는 Dr. Baird 가 校長이 되면서 예수교學堂이라는 名稱을 갖게 되었으며 1901년에 崇實學堂으로 改稱되었고 1906년에 大學部를 設置했으며 1907년에 政府로부터 大學 認可를 얻어서 1909년에 첫 卒業生을 내었다.<sup>17)</sup> 延禧專門學校가 서울에 設立된 經由는 1915년에 美國 北長老教宣教師部, 캐나다 長老教宣教師部, 美國 감리교宣教師部 聯合으로 서울 鍾路 基督教會館에 聯合大學을 設立함으로 비롯되었다.<sup>18)</sup> 梨花女子專門學校는 1886년에 梨花學堂으로 始作되어서 1910년에 大學科의 始作을 보게 되었으며 1925년에 專門學校로 認可되기에 이르렀다.<sup>19)</sup>

韓國에 最初로 온 宣教師들은 宣教師熱이 大端했음은 勿論이고 教育熱이 강한 出衆한 人物들이었다. 이들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 基督教大學들은 設立 當時부터 基督教의 性格이 強했으며 教育理念과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 聖書教育을 強力히 施行했으며 學園宣敎의 成果도 크게 期待되었다.

平壤 崇實의 責任者 Dr. Baird 는 韓國宣敎에 着手한 直時로 教育宣敎에 뜻을 두어서 學校 建立에 盡力하여 直接 責任者가 되었고 基督教의 人格을 養成하여 韓國社會와 教會에 有能한 人材를 輩出하기 爲하여 聖書교육에 깊은 關心을 갖고 聖書を 教科目으로 重要視했다.<sup>20)</sup> 서울 延禧의 創設者 Dr. Underwood 는 韓國宣教師로 赴任하는 길에 日本에서 李樹楨을 만나 우리말로 번역된 마가福音을 가지고 1885年 4月 5일에 仁川에 到着한 三日만에 Dr. Allen 이 開設한 廣惠院에서 教授했으며 宣教師로서 信仰的 熱意와 教育者로서의 情熱에 있어서 平壤의 Dr. Baird 와 같은 人物이어서 서울에 大學을 建立할 뜻을 定하고 活動한 結果로 1915년에 그 實現을 보게 된 것이다.<sup>21)</sup> 그러나 崇實의 Dr. Baird 와 延禧의 Dr. Underwood 間에는 學

17) a Profile of W.M. Baird in Korea, pp. 136~139.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pp. 337~340. 崇大論文集 1970, p. 67.

18) 延世大學校史 p. 277.

19) 梨花 70年史 pp. 65~67.

20) a Profile of Dr. Baird.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pp. 331~334.

21) 延世大學校史 pp. 284~285.

校 運營方針과 教育理念 目的上에 若干의 差異點이 있어 이것이 美國 宣教本部에까지 問題點으로 反映되어 졌다.<sup>22)</sup> 即 Dr. Baird는 教育方針과 目的을 基督教 指導者 乃至는 教會 指導者 養成에 重點을 두었고, Dr. Underwood는 社會에 有能한 크리스찬을 輩出시키자는 데 重點을 두었다. 白樂濬博士의 韓國改新敎史에 依하던 崇實大學의 初代學長職을 맡은 Dr. Baird는 그의 教育目的과 理想을 美國 Missouri 洲에 있는 Park College의 案을 따라 運營原則을 세웠으며 그 大學出身인 G.S. McCune 夫妻를 招請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sup>23)</sup> 이것은 그가 運營하는 學校가 徹底한 基督教主義로 強化되었음을 立證하는 것이며, 그 때 適格教授의 不足으로 宣教師들이 直接 授業을 擔當했음을 다음과 같이 傳해주고 있다. “Becker는 훌륭한 數學者 兼 物理學者였고 Baird는 仔詳한 聖書敎師로 人文學科의 先生이었고 Baird 女史는 自然科學과 音樂의 權威者였다. 이상 三者는 平壤의 基督教 教育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다.”<sup>24)</sup> 여기서 우리는 韓國 基督教 高等教育機關의 初創期에 聖書教育이 그 機關의 學長 自身이 親히 聖書科目의 敎授로서 授業을 直接 擔當했었다는 事實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敎科目 中에 新·舊約 聖書科目이 先頭로 되어 있음은 이 때에 學校行政과 커리큘럼이 基督教教育 強化에 一致를 보게 되는 것이다.<sup>25)</sup> 崇實大學의 聖書教育의 特徵은 三代學長이었던 Dr. Moffett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Dr. Moffett의 教育理念은 Dr. Baird와 同一했으며 그의 그리스도敎的 人格養成은 곧 基督教 指導者 혹은 教會指導者 育成을 目的으로 했다는 事實은 그의 傳記 속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句節들에서 볼 수 있다. “그의 모든 教育事業은 結局 福音傳道라는 이 한 가지 目標에 集約된다. 敎育은 福音傳道의 하나의 過程이었고 따라서 그의 學校에서는 聖書教育이 가장 重要視되었다.”<sup>26)</sup> 이같은 그의 聖書教育은 다음과 같은 그의 教育哲學이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即 聖經과 生活의 結合이며 聖書敎訓의 生活化인데 그는 먼저 이것을 自己自身에 適用시켜 嚴格히 實踐했으며 이 原理를 自己가 運營하는 學校에 適用하려고 했다.<sup>27)</sup> 그리고 그가 教會와 學校를 不可分の 關係를 맺게 했던 것은 長老敎 創始者 칼빈의 精神과 方法을 따른 것이며 學校 運營面과 커리큘럼을 一致시킨 것도 그의 基督教의 教育精神을 明確히 드러내어 보여준 것이다.<sup>28)</sup>

여기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Dr. Moffett을 爲始하여 그 때 基督教學校 運營者들이 얼마나 聖書科目을 重視했으며 基督教教育에 徹底했든가를 聖書教育問題로 日帝의 敎育的 迫害에 對

22) A Profile of Dr. Baird, p. 149.

23) 백낙준, Ibid p. 335.

24) Ibid p. 337.

25) Ibid p. 334.

26) 馬布三悅박사 전기, p. 262.

27) Ibid p. 265.

28) 馬布三悅박사 전기 p. 282.



處했던가를 찾아 보는 일이다. 日帝의 植民地 教育政策은 韓國國民을 그들의 皇國臣民으로 만들 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聖書を 正式教科目으로 授業하는 基督教系 學校를 그들의 教育施策에 違背된다 하여 聖書教育을 妨害하기 始作했다. 中學校의 경우는 聖書科目을 授業하는 學校를 다른 同等 學校와 같은 資格을 認定해 주지 않는 不公平한 行政을 했다. 大學의 경우 1911年 8月에 “朝鮮新教育令”을 發表해서 教科目을 總督府가 管掌하도록 해서 聖書科目을 許可하지 아니했다. 이때 崇實大學에서 教職을 맡고 있던 Dr. Moffett의 態度를 그의 傳記 속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그리스도精神을 拒否하지 아니하는 限 聖書科目을 삭제할 수는 없었다. 어느 누구 보다도 이 問題에 있어서 Dr. Moffett은 讓步하지 않았다. 비록 廢校를 當하는 한이 있더라도 聖書科目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굽힐 수 없는 主張이었다.<sup>29)</sup> “當局에서 聖書科目을 가르치지 말라고 指示했을 때에도 Dr. Moffett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聖書科目을 그대로 가르쳤다.<sup>30)</sup> “Dr. Moffett은 이같은 教育令에 抗拒하기 爲하여 美國, 英國, 캐나다, 호주 등 各國 宣教會 代表들과 함께 그 不當性을 指摘하고 是正을 要求하는 抗議書를 總督府에 提出했다. 1920年의 “新教育令”에는 聖書を 正規科目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밝혀 놓게 되었는데 이것은 Dr. Moffett 등의 不屈의 教育精神이 影響을 끼친 結果이다.<sup>31)</sup> 그리고 마침내 日帝가 神社參拜를 強要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受諾하지 않음으로 그 때 學長이었던 尹山溫(Dr. McCune)氏의 學長 承認 取消을 내세워 神社參拜를 強要했다. 이 때 理事長이었던 Dr. Moffett은 神社參拜가 基督教學校의 設立趣旨와 目的에 違背됨으로 1938年 3月 31日字로 廢校하기에 이르렀다.<sup>32)</sup> Dr. Moffett의 아들 S. Moffett은 初代 韓國 基督教의 聖書教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論評했다. “初代 韓國教會의 指導者들의 教育이 聖書中心이였으며 이것이 韓國 基督教의 急速한 成長을 위한 重要한 原因이 되었으며 韓國의 基督教가 日帝下의 迫害에 견딜 수 있었던 原動力이 되었고 韓國基督教의 性格을 形成시키는 데 重要한 役割을 擔當했다.”<sup>33)</sup> 우리는 위에서 韓國基督教가 初創期부터 成長期(日帝未까지)에 이르는 於間에 教會에서는 물론 中學校와 專門, 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에 이르기까지 聖書教育에 얼마나 努力을 했었던가를 살펴 보았다.

解放後의 韓國基督教學校의 狀況은 急轉되어 큰 變化를 일으키게 되었다. 卽 基督教系 中·高等學校들이 많이 新設되었고 大學들도 新設 或은 大規模로 擴張되었다. 이것은 自然 學校 運營面과 캠퍼스 雰圍氣 그리고 教科目 등에 큰 變化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人生觀, 價値觀, 世界觀의 變遷, 韓國의 特殊한 政治的 社會的 環境, 文教施策에 따른 諸般問題

29) Ibid p. 274.

30) Ibid p. 282.

31) Ibid p. 274.

32) Ibid p. 281.

33) S. Moffett: Christianity Today, Nov, 1973, Growth of Korean Christianity.

등은 基督敎學校의 敎育理念을 實現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 基督敎高等教育機關들은 聖書敎育에 있어서 強한 傳統을 갖고 있으며 그 影響力은 오늘에도 決코 無視될 수 없으며 過去의 歷史的 敎訓과 傳統은 未來의 韓國 基督敎大學의 聖書敎育 發展에 빛을 주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韓國의 基督敎大學들이 다른 나라들의 基督敎大學의 基督敎敎育에 있어서 差異點과 그 特異性을 갖게 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期待하며 이것은 오늘의 韓國 基督敎大學人들의 責任이기도 한 것이다.

#### IV. 韓國 基督敎大學의 聖書科目

韓國의 基督敎大學의 聖書科目에 대하여 論하기에 앞서 美國과 日本의 경우를 簡單하게 살펴보고 이것과 比較해서 우리 나라의 것을 論해 보기로 하겠다.

##### 1. 美國의 基督敎大學의 聖書科目

歐羅巴에서도 그러했듯이 美國에서도 基督敎 指導者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했던 것이 初創期의 大學의 시작이다. 美國 敎育史에 있어서 初創期에는 그 州 或은 그 地方의 指導者들과 行政家들이 基督敎信者였으므로 公立學校에서 聖書敎育을 施行하는 데 對하여 意見을 一致하였고 또 그것을 重要視하는 것이 極히 自然스러운 傾向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宗派와 敎派가 점차로 多樣化됨에 따라서 어떤 地方에서는 이것이 問題化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實情이었음에도 不拘하고 14州에서는 公立學校에서 聖書 읽기가 要求되었고 聖書學點이 賦課되기도 했다. 公立學校에서의 이같은 聖書敎育의 目的은 主로 道德的, 精神的 價值觀을 確立시키기 爲한 것이었으며 그 代表的인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34)</sup>

Human personality—the basic value

Institutions as servants of men.

Respect to truth

Moral equality

Brotherhood

The pursuit of happiness

Spiritual enrichment

美國의 非基督敎系 大學에 있어서의 宗教敎育이 廣範하게 施行되었고 또 지금도 施行되고 있음을 다음의 Taylor의 말에서 알 수 있다.

34) M. J. Taylor: *Religious Education*, p. 96

“Practicies in religious education at publicly supporte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very widely. Some state or public institutions are very little defferent from many private or church institutions in their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Most of the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is nation grew up in a predominantly protestant atmosphere. In many instances this meant the carry-over of patterns followed by protestant institutions of learning, courses in religion have frequently been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sup>35)</sup>

특히 Taylor 는 S.A. Smith 의 論文에서 引用한 글에서 “美國 州立大學의 95% 以上이 宗教科目을 提供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sup>36)</sup> 이같은 州立大學에서 提供하고 있는 宗教科目들은 聖書分野에 屬하는 것이 많다.

“Types of courses offered also vary greatly. Most commonly found are courses in Bible, ranging from a literary introduction to the Bible to a whole hast of courses a various aspects of the such as the prophets,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the philosophy of the O.T., the early christian church, the theology of paul, the archeology of Bible, and the like.”<sup>37)</sup>

이밖에 世界 現存한 宗教의 樣狀에 關한 科目들, 宗教史, 比較宗教學, 宗教哲學, 宗教社會學, 宗教心理學 등이다. 그리고 基督教史, 宗教改革史, 카톨릭敎史, 基督教思想史, 宗教教育에 關한 科目 등 許多하다.<sup>38)</sup> 勿論 以上の 科目들은 School of Religion 또는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를 가진 州立大學에서 敎수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敎養科目으로 或은 一般學生들에게도 敎수하고 있다. 特異한 例는 Iowa State University 에서는 宗教科目으로 Ph.D. 學位를 授與하고 있기도 하다.<sup>39)</sup> Michigan 大學校의 경우는 最近 11 Department 에서 宗教領域의 科目으로 學點을 提供하고 있다.<sup>40)</sup>

Ohio State 에 있는 大學校에서는 “English Bible”을 The Department of English에서 “The Reformation”을 歷史科에서, 哲學科에서는 11個의 宗教科目을 提供하고 있다. 그리고 Los Angeles 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에서는 聖書와 基督教에 關聯된 13科目을 提供하고 있다.<sup>41)</sup>

美國 州立大學의 宗教科目을 다음 몇 學校를 對照시켜 보고자 한다.<sup>42)</sup>

35) M. J. Taylor: *Religious Education* p. 306.

36) Ibid p. 309.

37) Ibid p. 310.

38) Ibid p. 310.

39) Ibid p. 310.

40) Ibid p. 311.

41) P. H. Lotz: *Orientation in Religious Education* p. 367.

42) Ibid p. 366.

University	Courses	Hrs.
U. of California(Berkeley)	17	72
U. of Cororado	24	95
U. of Georgia	10	55
U. of Illinois	5	17
U. of Kentucky	8	38
U. of Louisiana	9	24
U. of Massachusetts	6	21
U. of Michigan	20	59
U. of Nebraska	16	38
U. of Texas	12	48
U. of Virginia	3	9
Pennsylvania State Univ.	17	50

以上으로 美國 州立大學에서 取扱하고 있는 聖書科目에 對하여 大略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美國의 基督教大學의 경우를 찾아 보기로 하겠다. 美國에는 基督教大學이 莫大한 數에 達하고 있으며, John E. Cantelon 은 1700個 以上の 基督教大學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In the United States today over seventeen hundred liberal arts colleges are or were church related, New ones continue to be founded every year.”<sup>43)</sup>

그러나 J. E. Dirks 는 政府報告를 引用해서 基督教大學이 771校라고 했다.<sup>44)</sup>

The United States office of education in 1959 reported the existance of 771 Church-rela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of which 486 were Protestant, 280 were Roman Catholic and 5 were Jewish.

이같은 數字上的 莫大한 差異는 美國의 特殊한 事情으로 基督教大學과 一般大學의 區別이 모호한 데 있다. 即 그 大學의 根源은 本來 基督教大學으로 始作했다가 現在는 一般大學과 別다름이 없게 되기도 하고 그 反對로 州立大學이나 一般大學에서 基督教大學의 教育 pattern 을 따르기도 했던 것이다. 이같은 事實은 R. Michaelsen 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Most of the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is nation grew up in a predominantly protestant atmosphere. Courses in religion have frequently been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a, compulsory chapel was at time a Common feature among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t has almost ceased to be so today, but there are still many publicly supporte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hat have a chapel on the campus' and some sponsor regular worship services-usually of a protestant nature. A number of such institutions employ chaplains.<sup>45)</sup>

43) John E. Cantelon: *a Protestant approach to the campus ministry*,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64, p. 58.

44) M. J. Taylor, *Ibid* p. 259.

45) *Ibid* p. 30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聖書科目을 履修하고 chapel 時間을 定規的으로 갖고 校牧의 職制를 두어 일하게 하는 學校라면 그것이 私立大學이든 或은 公立 또는 州立大學이든 基督教大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數世紀 前이라면 美國의 大部分의 大學들이 이같은 pattern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一定한 教派에 所屬된 大學의 數는 많지 않다. 特히 뜻을 같이 하는 後援者들 또는 團體들에 依하여 獨立的으로 運營되는 名門 基督教大學도 있다.

1970年度 美國 大學 案内書에 依하면 聯合長老教派에 屬한 大學은 43個校이며 其中 몇個校의 聖書科目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sup>46)</sup> 1837년에 創設된 Muskinum College는 9學點의 聖書科目을 필수로 한다. 1866년에 創設된 長老教 名門校의 하나인 Wooster College는 聖書科目을 6學點을 필수로 履修시키고 있으며 academic standard에서나 歷史와 傳統에 있어서 Wooster College와 對等한 것으로 생각되는 1876년에 設立된 Grove City College의 경우는 聖書科目을 6學點으로 履修시키고 있다. 1866년에 設立된 南部의 King College는 10學點을 聖書科目에 割當시켰다. 最近 1958년에 設立된 Florida Presbyterian College에서는 “Every Semester Hours”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教派에도 所屬되어 있지 않으나 基督教 指向性이 가장 強하고 學의 水準이 높은 基督教大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美國內의 最優秀校 20個大學中의 하나로 1853년에 創設된 Wheaton College는 聖書科目 14學點을 賦課시키고 있다. 위의 大學들은 美國 一流 高等學校 出身들이 新入生の 過半數 또는 80%를 차지하며 志望者中의 過半數 學生들을 選拔하여 基督教 教育理念和 目的을 가지고 特殊한 教育政策과 方法에 依하여 教育하고 있는 大學들이다.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고 優秀한 教授陣과 施設을 具備하여 學生들의 선망의 對象이 되고 있는 大學일수록 그 大學의 教育理念을 具現시킬 수 있는 強力한 教育政策과 方法을 施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大學들은 肥大한 綜合大學校가 아닌 College level을 維持해 가고 있다. 大規模로 發展된 基督教 綜合大學校들은 chapel과 聖書科目을 賦課시킬 수 없음으로 campus內에 宗教活動을 할 수 있는 施設과 機會를 提供해 주며 Divinity School,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Religion,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등을 두어 基督教 領域의 專門家를 養成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그리고 教養科目으로서 基督教과 關係를 맺게 하는데 더 關心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今日 美國內에서 基督教大學에서 施行하고 있는 宗教科目들은 學校에 따라서 差異가 있기는 하나 大略 6科目에서 19科目에 이르기까지 多様하다. 그리고 學校에 따라서 필수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科目들을 提供해서 學生들이 自由로 選擇하게 하는 傾向이 많다. 그 科目들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46) Comparative Guide to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Students. 1970.

聖書概論, 詩歌文學, 豫言文學, 教會史, 基督教思想史, 聖書研究, 基督教教育, 基督教倫理, 宗教心理, 基督教教理, 基督教와 藝術, 宗敎學概論, 宗敎의 本質, 宗敎哲學, 組織神學, 實存主義와 神學, Augustine 哲學, Aquinas 哲學, 宗敎的 質問 등이다.

## 2. 日本의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

日本에서 가장 오래된 基督教大學은 1875年 京都에서 設立된 同志社大學校다. 東京에 靑山學院大學이 있고 上督大學, 關西地方에 關西學院大學 등이 日本의 代表的인 基督教高等教育機關들이다. 最近 東京에 國際基督教大學(I.C.U.)이 設立되었으며 最近 統計에 의하면 四年制 基督教大學이 26校에 達하고 短期大學(二年制)이 40個校가 있다.<sup>47)</sup>

韓國의 基督教大學은 綜合大學校, 單科大學, 各種大學들을 모두 合하여도 14校에 不過하니<sup>48)</sup> 日本의 基督教大學에 比하여 數에 있어서 劣勢다. 日本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은 大體로 敎養필수로 되어 있으며 學生들이 義務的으로 受講해야 되지만 其中 몇 大學들은 여러 科目들을 提供하는 選擇필수의 敎養科目으로 하고 있다. 聖書科目 講義는 한 學期 或은 一年으로 끝나게 되어 있으며 2學點 或은 4學點까지도 되어 있다. 其中 몇 學校를 例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靑山學院大學과 明治學院大學에서는 聖書科目을 敎養필수로 賦課시키고 있으며 二學期 동안 4學點을 取得해야 한다. 立敎大學에서는 聖書科目을 敎養필수 선택으로 하고 2學點을 取得하도록 하고 있다. 關西學院大學校에서는 全校生들에게 聖書科目을 敎養필수로 2科目 四學點을 取得하도록 하고 있으며 國際基督教大學에서도 聖書科目을 立敎大學校와 同一하게 敎養필수 선택으로 해서 2學點을 取得하도록 하고있다.<sup>49)</sup>

## 3. 韓國의 基督教大學의 聖書科目

韓國 基督教大學들의 聖書科目 履修過程을 簡單하게 歷史的 陳述을 하면 다음과 같다. 平壤 崇實의 경우는 創設以後로부터 廢校에 이르기까지(1907~1938) 每年 聖書科目을 필수로 履修시킨 것으로 생각된다.<sup>50)</sup> 崇實과는 달리 延禧의 경우는 記錄上으로 詳細하게 나타나 있음으로 여기 밝혀 보고자 한다. 即 延禧專門學校時代에 草創期(1915年) 以後부터 聖書科目을 履修할 수 없었기에 1921年의 延禧의 敎科目一覽表에는 聖書科目이 빠져 있다.<sup>51)</sup> 延世大學校史에 依하면 “그러니 初期 延專의 敎科 課程은 總督府의 私立學校 規則 때문에 聖書(神科 除外)를

47) 1966年度 日本基督教 年鑑

48) 1967年度 韓國기독교 年鑑

49) 延世論叢 第十輯別冊 p. 88, 1974年 12月 24日~38日까지 Hong Kong에서 開催된 東南亞基督教大學校敎會議에서 日本 I.C.U.와 關西學院大學의 校敎을 통해 얻은 資料를 參考했음.

50) a Profile of Dr. Baird와 Dr. Moffett의 傳記 그리고 現存한 卒業生과 敎授들과의 面談으로 얻은 資料를 參考로 했음. (특히 우호익 敎수와 고 김현승 敎수로부터 들은 바를 참고했음을 밝힘)

51) 延世大學校史 p. 304

全然 교수할 수 없었다”<sup>52)</sup>라고 되어 있다. 이 經由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 學務當局은 1915年 3월에 “私立學校規則”을 公布했다. 同規則 第6條 2項에 私立學校 教科課程은 規則에 規定한 教科課程에 準하여 이를 定하고 其外의 科目은 一切 賦課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sup>53)</sup> 이 規則만은 一貫되었기 때문에 本校의 教科目도 文科, 數學, 物理學科, 商科, 農科, 應用化學科는 一切 聖經과 韓國語는 교수할 수 없었다.”<sup>54)</sup> 그러나 1922年 2월에 總督부의 朝鮮 教育령 公布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聖書 教授가 許容되게 되었다.<sup>55)</sup> 그래서 1940年度의 延禧專門學校 教科課程 一覽表에는 聖書가 每學年 2學點式 配定되어 있다. 그리고 解放後 延世大學校에서는 1955년부터 성서과목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6學點을 履修하도록 되었다.<sup>56)</sup>

梨花의 草創期(1908年) 學科目的 完備된 配列을 보면 英語와 성서가 序頭에 있고 時間數도 성서와 英語時間이 第一 많았다고 記錄되어 있으나 무슨 內容을 가르쳤는지는 未祥이다.<sup>57)</sup> 1930年代 文科와 音樂과만이 있을 때의 梨花專門의 教科課程表를 보면 兩科에 모두 聖經科目이 序頭에 修身 다음으로 配列되어 있으나 時間數는 알 수 없다.<sup>58)</sup> 1956년부터 梨花女大에서는 週當 2時間에 8學點을 全校生이 필수로 履修해야 하며 여기에 체플學點이 加算되는 것이다.<sup>59)</sup>

解放後 南韓에서 새로 始作한 崇實大學을 爲始하여 啓明大學, 서울女大, 大田大學 등은 처음에는 聖書科目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每學期마다 2學點씩을 履修시켰다. 이 學校들이 모두 聖書科目 學點을 그 절반 이하로 減少시켰다. 그 實例를 崇田大學에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부터 1969년까지 每學期마다 2學點식 4年間 16學點을 全校生에게 履修케 했다. 1970년에 四學年 第二學期 聖書科目을 賦課시키지 않음으로 14학점으로 減少되었다. 1971년에는 1학년과 2학년은 4학점, 3학년과 4학년은 2학점씩 取得케 함으로 總 12학점이 되었다. 이 때부터 崇實大學과 大田大學이 合同해서 崇田大學校가 되고부터 兩캠퍼스에서 聖書科目學點은 同一하게 調停되었다. 1972년부터는 各學년에 2學點씩 總 8學點을 取得하게 했으며 1973년부터는 또다시 6학점으로 減少되었다. 이것은 最近 文教當局에서 대학 이수과목 총학점수를 160에서 140으로 減少시키는데 起因되는 不得已한 措處로서 모든 基督教大學들이 聖書科目을 6학점 이하로 감소시키게 된 것이다.

그동안 韓國 基督教大學들이 實施해 온 聖書科目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延世大는 宗教와

52) Ibid p. 309.

53) 延世大學校史 p. 303.

54) Ibid p. 304.

55) Ibid p. 334.

56) Ibid p. 640, p. 928.

57) 梨花 70年史 pp. 58~59.

58) Ibid pp. 94~95.

59) 前掲 延世論叢別冊 1971, p. 88.

基督教, 聖書概說, 梨花女大는 基督教概論, 基督教教育, 예수와 바울, 世界宗教, 舊約聖書, 宗教心理, 基督教倫理, 崇田大(서울캠퍼스)의 경우 基督教概論, 聖書概論, 基督教思想史, 現代神學思想, 서울女大的 경우 宗教概論, 基督教概論, 基督教倫理, 基督教의 社會 등이다.<sup>60)</sup>

以上으로 美國, 日本, 韓國의 基督教大學들의 聖書科目에 對하여 概括的으로 살펴 보았다. 基督教精神을 바탕으로 해서 成長해 온 國家답게 美國은 一般公立大學과 州立大學에서 聖書科目과 類似한 宗教科目들을 教養科目으로 많이 賦課하거나 選擇케 하고 있는 點이 日本과 韓國의 경우와 多少 相異한 點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韓國에서도 國立 서울大學校 안에 宗教學科가 設置되어 있어 新敎와 舊敎의 神學者들이 科目을 擔當하고 있으며 一般大學 中에는 中央大學校와 首都女師大 같은 學校들은 基督教 精神의 影響을 주고자 하는 努力을 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大形化된 基督教綜合大學校들의 경우 大同小異하나 美國 基督教綜合大學들은 聖書科目을 필수로 賦課시키지 않는데 反하여 韓國의 延大와 梨大를 爲始하여 모든 大學들이 僅少한 學點이기는 하나 聖書科目을 全校生에게 賦課시키고 있다. 美國의 College의 경우는 獨自性을 살려서 徹底한 基督教의 教育施策을 施行하는 學校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日本과 韓國의 경우를 比較해 보면 大學數에서는 韓國이 日本보다 劣勢하나 基督教 指向의 強度에서는 韓國 基督教大學이 日本의 基督教大學보다 優勢한 것으로 보아서 좋을 것 같다. 聖書科目들 그 自體로서는 美國이 훨씬 더 多樣性을 갖는다는 것 以外에 큰 差異點을 發見할 수 없으며 相互 類似한 科目들을 敎수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科目들을 얼마나 많은 時間數와 學點數를 聖書科目에 配定하느냐 라는 問題보다도 어떤 內容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敎수할 수 있겠느냐 라는 問題가 우리 앞에 重要한 課題로 남아 있는 것이다.

## V. 聖書科目의 諸問題

### 1. 敎師問題

韓國 基督教大學의 草創期에는 聖書科目을 擔當할 敎師가 至極히 큰 難問題中의 하나였다. 이 때는 宣敎師와 設立者 自身들이 直接 이 科目을 맡았다. 言語의 障壁으로 困難을 겪었으나 이것은 敎師와 學生들의 熱意로서 克服될 수 있었고 言語를 超越한 人格的 感化로서 效果를 거둘 수 있었다. 草創期을 지나 解放直前까지는 神學敎育을 받은 韓國牧師들이 敎수하게 되었다. 解放後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韓國 基督教大學들은 急增된 神學者들로 聖書科目을 擔當할 敎師의 不足은 없다. 그러나 社會의 急變과 大學의 肥大化와 非基督教敎者 學生들의 增加 등으로 새로운 難問題에 逢着하고 있다. 神學者 或은 神學大學의 敎授라고 해서 基督教大

60) 前掲 延世論叢別冊, 1971, p. 88.



學 聖書科目을 擔當할 適任者가 될 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오늘의 基督教大學들은 이같은 새로운 狀況에 따르는 諸難題들에 對處할 適切한 準備가 있어야만 하겠다.

## 2. 教科書와 教材問題

草創期로부터 解放直前까지의 오랜 期間 동안 聖書科目의 教科書로는 거의 新·舊約聖書에 局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解放과 더불어 基督教界에 많은 著書들이 出版되고 良書들이 翻譯 出版 됨으로써 現在는 聖書科目의 教科書에 該當될 수 있는 좋은 書籍들과 教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參考書籍들이 쉽게 教師와 學生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어느 特定한 冊을 教科書로 使用하기 어렵다는 事實이 그동안 大學 聖書科目을 맡아 온 교수들의 경험에 依하여 밝혀졌다. 그 理由中의 하나로 專攻이 다른 大學生들에게 特徵이 다른 많은 冊中에 어느 한 卷을 擇했을 때 自然 教科書로서 不滿을 갖게 된다. 이 點을 解決하기 爲하여 一部 關係學者들이 그동안 研究를 繼續해 왔으며 教科書로서 著作 出版해 보기도 했으나 完全히 滿足스러운 解決은 期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相當한 期間 聖書科目 擔當 교수 各自가 願하는 教材를 自由選擇하여 교수하고 學生들에게는 參考書籍들을 많이 推薦하는 것이 現在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學과는 달리 中高等學校에서는 解放直後부터 聖書科目 教科書가 出版되어 왔다. 基督教學校 聯盟과 基督教教育協會에서 各己 다른 聖書教科書를 出版하였다. 처음에는 兩者가 모두 聖書中心의 教科書를 出版했으나 漸次 社會問題, 倫理問題, 文化에 接近하는 教科書로 指向 發展해 오고 있다. 聖書科目의 目標을 編輯者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sup>61)</sup> “學生들로 聖書에 對한 基本的인 知識을 習得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성서의 교훈과의 관계를 理解하게 하려는 데 그 目標을 둔다.” 이같은 目標에 따라서 中學校 一年은 舊約 人物中心의 教訓으로 엮고 二年은 新約의 福音書中心으로 예수의 生涯와 教訓으로 엮었으며 三年은 교회 역사를 쉽게 풀이했다. 高校 一年에는 다시 聖書의 事件들을 中心으로 다루고, 二年은 自我發見과 이웃과의 關係를 다루었으며 三年에서는 삶의 意味를 追求하여 信仰의 決斷을 促求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中高等學校의 聖書科目의 內容은 大學에서 크게 參考삼아야 할 價値가 있는 것으로 본다.

美國의 大學生들은 宗教科目을 學問的 研究의 對象으로 삼고자 하는 傾向이 濃厚한데 比하여 韓國의 大學生들은 宗教科目이 教養的이기를 期待하고 있다.<sup>62)</sup> 여기에 對하여 筆者는 大學의 聖書科目이 中高等學校와는 달리 大學의 다른 學科目과 比較하여 學問的 水準이 低下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와 同時에 一般大學이 神學校가 아니라는 點을 깊이 考慮해서 過度

61) 한국기독교학교연맹원, 중 고등학교 성경 과목 교과서 서문 중에서.

62) M. J. Tayligious Taylor: *Religious Education* p. 340.

한 專門的 知識으로 指向하지 않으면서도 精神的인 面과 信仰的인 面이 隨伴되어질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오늘의 기독교大學의 聖書科目 擔當者들이 當面한 課題가 있는 줄로 믿는다.

### 3. 聖書科目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

聖書科目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가르칠 것인가 함은 學生들의 性向과 그 科目에 對한 反應의 實態를 正確하게 把握할 必要가 있다. 여기에 對하여 延世大學校의 校牧室과 서울女大 校牧室에서 實施한 6個 韓國 基督教大學 實態調查 報告에 나타난 것들과 筆者가 崇田大學校에서 隨時로 얻은 資料 및 경험을 土臺로 해서 論하고자 한다.<sup>63)</sup>

兩調查報告는 聖書科目에 對한 學生들의 關心度가 査플보다 낮은 것으로 一致하고 있으며 效果的인 反應은 良好한 便이 아니다. 筆自의 見解도 같으면서 다만 이 報告가 聖書科目 담당자 個人的 差를 無視하지 않음을 考慮해야 하는 同時에 一般 다른 學科目과 같이 一學期를 連續 講義하는 경우와 特講을 한 번 어떤 特殊한 講師에 依하여 받는 學生들의 反應이 一致할 수 없듯이 每番 査플 講師가 새로운 人物이 招請되는 때에 學生들의 反應이 다른 것이라는 點이 考慮되어야 함을 指摘코자 한다. 다만 이 報告의 價値는 앞으로 聖書科目에 對한 改善策이 講究되어야 하고 새 研究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는 事實을 強調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다.

聖書科目의 內容에 對하여 教養的인 것을 要求하는 學生들의 數가 많고 특히 聖書科目 內容이 實生活과 直接 關係있는 것으로 講義해 주기를 바라는 點은 基督教大學들이 現在 非基督教 學生들을 더 많이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과 함께 깊은 關心으로 注目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 報告書中 注目할만한 事實은 基督教系 6個大學의 學生들이 聖書科目에 對하여 絶對多數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낸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는 點이다. 더욱 豫想과는 달리 無宗教 學生과 非基督教 信者들 중에서 높은 關心度를 나타내고 있다는 點은 앞으로 聖書科目의 改善策을 마련하는데 크게 參考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科目을 否定하는 極少數의 學生들에 對한 깊은 關心과 特別한 配慮로서 研究되어야 하겠다. 卽 그들의 家庭, 宗教, 趣味, 格性, 專攻分野 등이 考慮됨직 하다.

## VI. 結 論

現代는 人格教育, 精神教育, 나아가서는 宗教教育의 實效를 거두기 어려운 時代라고 한다. John E. Cantelon 은 The Crisis in Higher Education 이라는 項目에서 大學教育 危機의 要素

63) 基督教大學의 宗教教育類型에 對한 연구, 서울女大論文集 pp. 61~64.

를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sup>64)</sup>

All of the reasons, cited for the crisis thus for—population increase, scientific competition, and the changing student constituency—are certainly significant factors in the current educational crisis.

그리고 그는 보다 根本的인 大學教育의 危機는 理念의 缺乏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日本의 高尾교수도 「基督教大學의 死와 再生」이란 冊에서 日本의 기독교大學들이 設立目的과 理念을 忘却했으므로 死亡宣告를 내리고 再生의 處方을 提示하고 있다.<sup>65)</sup> Charles, S. McCay 도 最近의 그의 著書에서 亦是 基督教大學이 自己同一性을 喪失하였음을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hurch-related College 라는 項目에서 主張하고 있다.<sup>66)</sup> 韓國의 基督教大學들이 오늘의 現實에서 그 例外일 수 없을뿐만 아니라 韓國 特有한 狀況 속에서 危機에 處해 있음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本論에서 指適된 바와 같이 聖書科目에서도 文教施策에 따른 不得已한 學點減少와 大學自體의 肥大化로 因한 學生數의 莫大한 增加 등으로 因하여 거의 諦念狀態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다. 筆者는 本論에서 基督教大學 教育理念과 聖書教育의 깊은 關聯을 밝혔다. 그리고 韓國의 基督教 高等教育機關들이 過去 歷史에서 聖書科目이 얼마나 어려운 試鍊을 겪어오면서도 重要視되었고 至大한 影響力을 誇示해 왔음을 指適한 바 있다. 그리고 今日 韓國基督教大學들이 施行하고 있는 聖書科目의 運營實態와 여기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을 살펴 본 바 있다. 以上の 여러가지 狀況과 條件들을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이 提言코자 한다.

첫째 基督教大學이 그 目的을 達成하고 理念을 具現하려면 聖書科目을 強化해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게 마련이다. 學校 교육정책과 커리큘럼은 密接하게 結付되어져야 하고 一致되어져야 한다. 다음은 聖書科目 內容도 新·舊約聖書 自體를 다루거나 教科內容과 깊은 關聯을 갖게 하는데 小心치 않고 보다 더 積極的 姿勢를 取할 必要가 있다. 그 責任은 오로지 聖書科目을 擔當하고 있는 教師들에게 있는 것이다. 現代라 해서 聖書を 大學生들에게 忌避시켜야 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다만 教師가 聖書を 얼마나 오늘의 말씀으로 再解釋하는데 努力하느냐 혹은 그의 能力을 얼마나 發揮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學校 運營當局은 聖書科目 擔當教授의 研究 實際 適用 등에 必要한 모든 밑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는 聖書科目과 다른 學科의 科目과 結付시키는 일이다. 英文科의 경우 English Bible,

64) John C. Cantelon: Ibid p. 63.

65) 高尾利數: 日本キリスト教主義大學の死と再生, 新教出版社, 東京, 1969.

66) Charles S. Mccay: The Responsible Campus, pp. 19~20.

Literature of N. T., 聖書文學(Job, Lamentation, song of songs, psalms), 歷史科와 哲學科, 社會事業科 등은 Reformation, Church History, Philosophy of Religion, Christian Ethics, Religious Sociology, Religious Psychology 등 많은 科目들을 結付시킬 수 있다.

셋째 大規模화된 大學校에서는 Divinity School, School of Religion,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Music of Religion 등, 그리고 Graduate School 에는 基督教와 關聯된 專攻學科를 중심으로 學問的으로 大學校內 基督教의 Center 가 이루어질 수 있고 教會와 社會에 基督教의 교육프로그램을 通하여 貢獻함으로써 基督教大學의 目的 達成과 理念具現을 可能케 한다.

끝으로 聖書科目의 改善, 發展을 爲해서 人的 財政的으로 充分한 支援을 하여 教科書, 教材, 教授方法 등을 研究케 하고 實際로 適用할 수 있는 機會를 許容해 주어야 한다. 每年 增加 一路에 있는 非基督教大學生들을 수용해야 하는 學校 當局이 이같은 일들에 對하여 適切한 對備策을 樹立함이 없을 경우에 基督教大學은 名目上의 存在로 轉落할 수밖에 없는 基督教大學의 危機가 올 것은 너무나도 分명한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 A Study on the Bible Courses at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Oh, Eun-soo

## Summa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nable Christian schools, which exist under a difficult situation in Korea today, to seek proper direction and expediency for putting into operation their Christian education, especially their Bible courses, in the academic curriculum.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few points as follows:

1.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religions in the world is the education of their believers. Therefore the canons of those religions have been held in regard as their textbooks. The Bible of the Christian Church also became a norm and a criterion for the life of all Christians.

2.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very important institutions for the attainment of the aim and idea of the Christian Church. So Christian higher education has had Bible courses in its regular academic curriculum for a long time. Recently, the Christia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came larger, resulting in the multiversity of today with the result that their aims and ideas are almost dead, and a serious problem is to seek a rebirth of their own fundamental spirit or self-identity.

3. John Calvin who was a great theologian and educator had an idea of matching two institutions, the Church and school, very closely, and his motto is, "the school beside the church." The ancient church fathers in Korea followed this same idea and method. Thus they built the Church and the school at the same time.

4. Some one says that the Church of Korea is one of the miracles of the modern missionary movement. Its cause is Bible study, that has accounted for the amazing growth of the church, which is dependent upon the firm foundation of Bible-centered teaching. This was the one of the motivations to conquest the strong crafty oppression under the Japanese regime.

5.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should be a his-

story of the accession of the spirit of the Bible-centered Christian instruction of the Church of Korea. We should remember that Soong Sil College in Pyung-Yang including the other church-related schools, taught the Bible courses in spite of the oppressive policy of the agency of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6. The church-related school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 in Korea today are developing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On the other side, the Church-related schools are confronted in so many difficulties today from both within and without side. The administrators and leaders of the Church-related schools in Korea should continue the same spirit and idea of their own Church fathers. We shall never forget the saying: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